

돈 없으면 '사랑' 불가능



지난 14일은 '화이트데이'였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주는 행사로 지난달 14일 '발렌타인데이'의 후속행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들이 대학생들의 사치를 조장하는 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우리신문에서는 지난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통해 학생들의 소비행태를 알아보고 원인과 대책을 진단해 본다.

<면접자>

경영학부의 김모군은 오늘 저녁 약속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지난 달 14일 '발렌타인데이'때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받은 초콜렛 선물에 대한 답례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아침 10시 김모군은 선물가게에 들러 사탕이 든 바구니를 2만 5천원에 구입하였다. 지난달 그의 친구에게 받은 초콜렛보다 5천원 가량 비싼 것을 샀다. 그녀에게 잘보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김군은 여자친구를 불러 커피숍에서 선물을 전달하였다. 이후 김모군은 여자친구에 의해 술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화이트데이'라서 그런지 자리가 없었다. 2~3군데를 전전한 끝에 김모군은 병맥주가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시간은 약 3시간 평상시의 대화와 다를 바 없었다. 단지 또 한번의 만남이 즐거울 뿐이다. 과일안주와 병맥주 5병을

시킨 김모군은 사랑값을 포함하여 오늘 하루 총 7만원을 소비하였다.

김군에게 사랑을 산 이유에 대해 물어 보았지만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단지 오늘이 '화이트데이'라는 무감으로 사랑을 산 것이라고 얘기한다.

'화이트데이'와 '발렌타인데이'가 언제부터 유래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발렌타인데이'는 기원전 3세기경 이탈리아에서 결혼을 집행해준 죄로 순교한 발렌

생거났다. 또 왜 초콜렛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유래가 없다. 발렌타인데이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에서도 현재 이 행사는 치러지지 않고 있다. 행사가 가장 활발하다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도 편지를 주고받는 행사들만 간소하게 열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행사때 판매되는 초콜렛과 사탕의 판매수치는 현대백화점 압구정동지

원에서부터 7만원까지이나 7~8천원 가량의 사탕이나 초콜렛이 주 대상이다. 작년의 경우 장식이 있는 선물이 인기가 있었으나 올해에는 단순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것들이 많이 판매된다고 롯데백화점 잠실지점 관계자는 얘기한다. 또한 '발렌타인데이'때 보다는 '화이트데이'때 더 비싼 가격대의 상품들이 판매된다. 강남역에서 화원을 경영하는 김상식씨는 "발렌

지난 14일 '화이트데이'때 판매된 상품은 1년 배상의 25%를 차지한다.

14일 저녁 이 시간에도 학생들은 화이트데이를 맞아 이성에게 대한 관심을 선물 전달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행사들을 외국에서 건너왔다 하여 배척하기에는 이미 우리의 정서가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자유로운 이성교제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이번 취재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과소비가 만연되는 풍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 사이에서 돈이 많은 지출 사용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현상이 보인다. 돈은 얼마들던지 그날 하루를 어떻게 즐기느냐가 그들의 주 관심사가 되었다. 자신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돈으로 환심을 사려는 경향이 팽배한 지금, 본래의 뜻과 어긋나버린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의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택근 기자)

상품 판매 평상시보다 20배 증가

3천원 ~ 7만원 다양한 가격대 형성

행사의 속뜻보다 외향 중시풍조 만연

대학생에게 있어 7만원은 적지 않은 액수이다. 그러나 김군은 오늘 자신이 쓴 돈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면 이정도의 액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타인사제의 제삿날로 우연히 이날이 동면에서 깨어난 새들이 서로 짝 짓는다는 유럽의 풍습과 맞아 떨어져 '연인의 날'로 정착됐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화이트데이'는 사랑판매원의 상술에 의해

점의 경우 평일 판매치의 20배가 넘는다. 평균 하루판매량이 10~20만원이라고 할 때 2천만원 가량이 그 날에 모두 판매된다. 이같은 경우는 서울 대부분의 백화점이 비슷한 실정이다. 상품의 가격은 3천

타인데이때는 1송이나 2송이가 잘팔리고 화이트데이때는 바구니나 화환이 주를 이룬다. 꽃을 구입하는 구매자는 젊은 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심지어 10만원이 넘는 화환을 사는 학생도 있다."라고 얘기한다.

직접필요

정보와 재미 그리고
대학주보